



# 科學圖書出版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金 貞 欽  
(理博·高麗大教授)

## ◇ 出版順位 끝지인 科學圖書出版

出版協會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0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圖書刊行物중 순수과학분야의 刊行種類數는 總12種目中 제 1위의 文學, 제 2위의 兒童을 거쳐 학습참고서, 사회과학, 기술, 철학, 종교, 예술, 詩學, 역사, 제11위의 總類의 다음인 제12위라 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 12가지 種目中 제일 끝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제7위) 안타까운 일이다.

美國의 年間 發行種目數 8만 4천 5백중, 소련 8만 4천 3백중, 西獨 4만 4천 4백중, 日本 3만 6천중, 英國 3만 4천 1백중 등에 비해 인구나 GNP면에 있어 훨씬 뒤떨어진 우리나라가 당당히 1만 5천 1백종을 출판하여 世界 9位를 차지하는 先進그룹에 속하면서도 유독 科學系 出版物만은 國內에서 最下位가 된다는 것은 안타깝기보다는 울화통이 터지는 슬픈 이야기이다.

科學韓國이니, 생활의 科學化니 하는것을 크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과학서적이 푸대접을 받고, 그 出版順位가 끝씨가 되어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세계 제 2위의 造船量을 이룩했고, 世界에서 네번째로 VTR(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TV錄画機)을 만든 나라, 미국, 독일, 일본, 화란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NMR-CT(核磁氣共鳴 컴퓨터斷層사진기)라는 高度의 기술을 要하는 醫療機器를 개발한 나라치고는 너무도 허술한것

이 과학도서의 출판이다.

## ◇ 公共圖書館의 寄贈要請을 없애야만

外國에서는 유용한 뜻있는 책들이 나오면 公共団体나 학교에 있는 圖書館이 한권씩 사주기 때문에 책내용만 좋다면 최소한 5,000원에서 1만원을 이들 圖書館이 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學術書籍들에 대한 최소한의 販路가 열려 出版社는 용감하게 出刊에 도전할 수 있고, 著者도 용기 백배해서 강연이니 雜誌記事執筆이니 등의 유혹을 뿌리치고 좋은 책쓰기에 힘쓴다고 한다. 그 결과 좋은 책이 나오게 되고, 좋은 책이 나오니 도서관에서는 꼬박꼬박 사주고, 圖書館이 꼭 사주니 出版社는 良書를 더욱더 많이 내고…… 등등의 과정이 되풀이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심하게도 公共圖書館은 저마다 出版社에게 책을 기증하라고는 하지만 尙선해서 사보려 하지는 않고, 빈약한 圖書費 책정으로 인한 값비싼 良書(良書는 出版部數가 일반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 값이 비싸게 된다) 보다는 싸구려 책을 많이 사서 量을 채우려하게 된다. 우선 國立圖書館부터가(筆者의 앞은 知識으로 잘못誤解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各出版物마다 5권씩이나 新刊書籍을 납품하라고 法으로 규정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그야 한권이라면 出版社로서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왜 5권씩이나 납품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만약 5권이 정말로 필요

하다면 왜 나머지 4권을 사지 않는지? 国立圖書館에도 圖書購入費는 책정되어 있을터인데, 新刊書籍을 모두 공짜로 입수하자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国立圖書館뿐만 아니라 모든 公共圖書館이 가능하지만 하면 공짜로 책을 기증받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가난했던 20년전이나 30년전에는 국가예산도 적었으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GNP는 20년 전에 비해서 약 20배 이상이나 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제 가난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가난한 시절의 생각을 가지고 圖書政策을 세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 ◇ 그레이섬의 法則이 成立되는 圖書購入

이제 이런 가난한 시절의 가난한 思考方式은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外國의 경우, 예컨대 化壇에서 刊行되는 Nuclear Physics라는 學術雜誌는 개인에게는 年50弗 정도로 싸게 팔면서도 圖書館에는 年間 1천弗 정도나 비싸게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圖書館은 이비싼 雜誌를 購入하고 있다. 즉, 公共圖書館은 책을 공짜로 받기는 커녕 개인이 사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도 사고 있어 出版社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그 나라 문화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반대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年間學校圖書費는 형편 없이 적다. 20년전의 가난한 시절에 정해놓았던 圖書費에서 그리 많이 增額되어 있지는 않다. 한 학교 圖書費가 몇10만원 정도인 학교마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몇10만원에서 선생님들이 읽을 신문, 잡지등의 定期購読料나 선생님들이 읽는 책값을 빼놓으면 학생들이 읽을 책을 모아 사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감독기관에서는 圖書館의 具備圖書基準을 세울때 책값이 아니라 冊數로 규정을 짓기 때문에 그레이섬의 法則이 여기서도 발휘가 된다. 惡書가 良書를 구축해버리는 것이다. 심한 경우

는 서울의 청계천 7가 부근에 있는 수많은 싸구려 책방에서 책을 大量 구입하게 된다. 이런 책 중에는 걸다르고 속이 다른 책도 많다. 예컨대 232面 다음이 틀림없이 233面이긴 하지만 엉뚱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다. 즉 落丁된 책을 뚱값으로 사와서 아무렇게나 몇책에서 落丁된 부분을 서로 다른 종류의 책에서 뜯어다 페이지數만 맞춘 책마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책이 定價의 半도 안되는 가격으로 납품이되니, 그런 책을 읽는 학생들의 지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의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科學書籍이다. 과학서적은 그림도 많고, 數式도 많고해서 이런 조작이 힘든데다 책값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책속에는 끼여들기가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多幸한 일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그런 엉터리 책을 볼 기회가 없으니 말이다. 그대신 비싼 과학서적은 그 책의 제목마저도 그 책의 表紙마저도 도서관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 ◇ 科學圖書를 等한시하는 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이 학생들을 위한 책, 그중에서도 과학서적을 사지 않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는 初·中·高校가 합쳐서 1만校가 넘는다. 그런데 과거 20년간 우리나라 유일의 科學雜誌였던 학생과학(초·중·용이지만 高校生이나 대학생이 읽어도 좋은 내용이 많다)의 販賣部數는 오랫동안 학교수보다도 적었다한다. 쉽게 말해 일반 대중잡지는 구독하면서도 「학생과학」을 정기구독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잡지는 20년 내내 赤字出版을 하고 있다. 이 잡지를 刊行하는 會社의 母體재벌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이미 20년전에 倒産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일개 잡지사들 두둔한 이유는 그 會社의 회생정신, 이나라 어린이들에게 科學精神을 심어주

려는 정신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학생과학뿐만 아니라 금년에 새로 刊行된 「사이언스」라는 月刊誌와 작년에 창간한 週刊科學이라는 週刊誌도 苦戰中에 있다. 각급 학교가 한권 또는 두권씩만 정기구독을 해 주더라도 이 社會社들의 경영은 훨씬 양호해질 것이고, 경영상태가 양호해지면 내용도 좋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왜 科學圖書에는 잘 팔리는 책이 안나오는가?

잡지뿐만 아니라 單行本도 마찬가지이다. 科學系 單行本은 정말로 팔리지 않는다. 책이 나빠서인가? 독서층의 무관심 때문인가? 또는 책값이 비싸기 때문인가? 또는 과학은 힘들다는 선입감 때문인가? 아마도 이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듯하다.

예전엔 정성들여 만든 科學良書가 드물다. 가령 어떤 著者が 있다 하자, 그 著者が 책을 한권 쓰는 데는 거의 1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원고지를 써놓고도 마음에 안들면 뜯어 고쳐야만 한다. 그렇게 고생해서 책을 내었다 하자, 한권에 2,500원의 정가를 부쳤다 하자, 그 책은 初版에 아마도 1,000권밖에 안 찍을 것이다. 1,000권도 出版社로선 팔릴지 안팔릴지 모험이기 때문이다. 1,000권을 出刊했을 때 著者が 받는 印稅는 책값인 1,000원×2,500원/권=250만원의 10%인 25만원이다. 그런데 이 著者が 재벌그룹의 弘報紙나 社誌에 원고지 20매만 쓰면 8만원 내지 10만원은 받는다. 이런 원고를 3번만 쓰면 25만원은 쉽게 벌수 있다. 또는 社員教育을 위한 강연에 2~3회만 나가면 1년 고생해야 겨우 받는 印稅 25만원은 쉽게 받게 된다. 따라서 그는 良書를 著述할 의욕은 가지면서도 결국 당장 돈을 많이 주는 이런 종류의 유혹에 넘어가 지루하게도 1년이나 걸리는 著述에서 멀어지게 된다. 물론 著者란 著者が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또 教授들은 최근에는 비교적 많은 研究費, 대개의 경우 年間 수100만원을 받는다. 研究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1년내내 고생해서 25만원의 印稅를 받는 책쓰기는 그들에게는 苦役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쓸만한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책쓰기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특히 理工系 교수들에게 이런 경향이 많다. 그러니 쓸 사람은 이와같은 주변환경의 지배를 받아 점점 더 못쓰게 되고, 그 결과 재미나고 有益한 科學圖書은 더욱더 出刊되기가 힘들게 된다.

### ◇ 科學圖書을 위한 한 두가지 方案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첫째는 모든 學校圖書館이 다른 費用은 節約하더라도 學校圖書費를 10배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학교가 사용하는 각종의 직접·간접적인 접대비를 절약하고, 다른 비용, 예전엔 體育大會를 위한 비용(體育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體育大會에서 우승하기 위해 쓰는 비용같은 것은 너무도 아깝다. 우승은 國民體位 향상이나 학생들의 體位향상과는 무관하다. 그 비용을 줄이자는 것 뿐이다) 같은 것을 아끼기만 하면 빈약한 현재의 도서구입비를 10배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두뇌는 더욱더 중요하다. 더구나 앞으로의 세계가 과학기술의 세계라는 사실에 주의한다면 과학도서의 보급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또 한가지의 方法은 科學書籍著述人에 대한 補助이다. 文芸振興法에 의해 文人들에 대한 원고료지원과 같은 것을 과학기술계 著述人에게도 지급한다면 위에서 言及된 애로중의 몇 個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80年代 및 90年代에는 高度技術에 의해 우리 經濟를 더욱더 발전시켜 世界先進國그룹에 끼려는 雄大한 計劃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科學圖書의 出版을 장려하고 科學圖書을 보급시키는 일이 急先務의 하나가 될 것이다.